

SI활용 장애예술 활동지원 공모 심의평

- 발달장애인의 예술활동 폭을 SI를 통해 넓힌다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지원자가 다양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과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춰 고민한 프로그램들이 보여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SI기술을 어느 범위까지 창작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단순한 오브제로 볼 것인지 등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하며, 대상자의 폭을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 유형으로 넓히는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24년도 SI활용 장애예술 활동지원은 모두 여섯 개의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단체에 따라 SI를 활용하여 예술 활동에 접목시키는 방법이 다양했는데, 주로 SI활용에 대한 표피적인 아이디어(기획)이 많음에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체는 단체에 적절하고 적합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앞으로 각 단체들은 SI활용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분야에서 더욱 심도 있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강사진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큰 숙제가 될 거 같습니다.
- SI의 활용이 장애예술과 만나는 지점에 있어, 장애인의 상상력을 구체화해 주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서가 이런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인공지능 툴을 활용하여 기획부터 연습 과정, 결과물까지 직접 계획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단체들이 이번 지원에 응모하였습니다. 단체의 경험 유무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 구성에 아쉬운 지점이 있는 단체도 있지만, 교육과정 등을 거치고 전문가를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4. 5. 7.

심의위원 문미희, 이나리메, 전강희